◉문화재청공고제2016-35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7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 예고 대상 : 7건
      1)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2)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3)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4)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
      5)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6)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7)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金允謙 筆 嶺南紀行畵帖)

- ㅇ 지정현황: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6호(2004.10.4.지정)
- ㅇ 소유자(관리자): 동아대학교박물관
- ㅇ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 ㅇ 수 량: 1점(14폭 화첩)
- ㅇ 규격(cm): 27.3~31.1×21.1~47.6
- ㅇ 재 질: 종이바탕에 수묵담채
- ㅇ 형 식: 화첩
- ㅇ 제작연대: 18세기 후반
- ㅇ 사 유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은 본관이 안동으로, 자는 극양(克讓), 호는 진재(眞宰)·산초(山樵)·묵초(默樵)등이다. 문인화가이기도 한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의 서자로 부친의 그림 취미를 이어 개성적 화풍을 이루었다.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로 사대부로 현달(顯達)하지는 못했으나 소촌역(召村驛) 찰방을 지냈다. 김윤겸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강세황(姜世晃, 1713~1791)과 같이 활동하였으나, 화풍 상 전혀 다른 개성과 특징을 보여준다. 그는 사물을 극도로 단순화시켜 간단하고 짧은 필선으로 묘사하고, 투명한 담채를 살짝 곁들여 추상미가 풍기는 그림을 그렸다. 그림의 소재로는 진경산

수화가 가장 많은데, 그가 평생 전국을 유람하며 실경의 감흥을 독특한 개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윤겸은 조선시대 문인화가 중 특유의 개성과 넓은 지역의 다양한 실경산수를 남겨 회화사상 독특하고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김윤겸의 작품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영남기행화첩>은 주로 부산, 경남 일대의 지역을 그린 14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일부는 현재 유적지가 남아있지 않으나 조선후기 선비들의 여행과 시문서화 예술의 창작 상황을 잘 보여준다. 영남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14폭의 작품을 남겨, 지방자치 시대인 현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작품 자체로도 김윤겸의 회화를 대표할 만한 높은 수준으로, 비록 원래화첩의 모습은 아니고, 일부 결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태로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靑磁 象嵌堆花草花文 瓢形 注子 및 承盤)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1건 3점
○ 규격(cm): 전체높이 29.7, 최대지름 18.3 승반높이 8.8, 승반구경 18.3
○ 재 질: 도토(陶土)
○ 제작연대: 고려시대 12~13세기
○ 사 유

이 청자는 퇴화(堆花) 기법으로 자유로운 필치의 초화문(草花文)이 장식된 주자와 승반으로, 과감한 장식 문양이 돋보이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표주박 모양의 주자와 뚜껑, 승반이 하나의 완전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이 청자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 주자에서 가장 빼어난 부분은 퇴화 기법으로 나타낸 문양에 있다. 백토니(白土泥)와 자토니(赭土泥)를 이용한 퇴화 기법은 자유로운 필치를 한껏 살려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렬한 느낌의 초화문을 생동감 있게 베풀었다. 또한 주자의 몸체 곳곳에 흑백의 문양을 번갈아 나타내며 대비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주자의 아랫박의 문양은 초화(草花)를 그린 백원문(白圓文)과 당초(唐草)를 음각한 백원문대(白圓文帶)의 두 개의 구획으로 나뉜다. 이들 문양의 바탕은 각각 구획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바탕을 커다랗게 마련하고 각 문양 사이의 공간을 긁어내어 여백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 드문 경우이다.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세심하게 베푼 문양은 최고 수준의 퇴화 기법을 구사한 장인의 손길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 청자는 완전한 조합과 구성, 당당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몸체, 자유로운 필치로 정성스럽게 그린 문양 등 세련된 퇴화 기법의 정화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유례도 많지 않지만, 퇴화 기법을 대표할 만한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다.

□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靑磁 竹筍形 注子)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1건 2점
○ 규격(cm): 뚜껑- 높이 6.7,
몸체- 높이 19.2, 입지름 3.0 바닥지름 7.6
○ 재 질: 도토(陶土)
○ 제작연대: 고려시대 12세기
○ 사 유

이 청자는 죽순(竹筍)을 형상화한 상형청자(象形靑磁)로, 여러 식물 모양 청자 가운데서도 조형과 장식, 유색(釉色)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상급의 청자로 평가된다.

현재 지정된 고려청자 가운데 상형청자가 제법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형청자가 다른 청자에 비해 창조성과 완성도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특히 이 주자는 현재 지정된 다른 상형청자에서 보기 드문 죽순이라는 소재를 형상화했다는 점과 우아한 조형미, 그리고 빙렬(氷裂)이 거의 없는 완벽한 표면과 은은한 광택의 유색 등 질적인 완성도 면에서 다른 지정문화재와 차별되는 특징을 보여, 최상급 상형청자의 본보기라고 할 만하다.

□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靑磁 透刻蓮唐草文 筆架)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1건 1점
○ 규격(cm): 높이 9.0, 길이 17.6, 너비 4.8
○ 재 질: 도토(陶土)
○ 제작연대: 고려시대 12세기
○ 사 유

이 청자는 문방구 가운데 붓을 꽂아 보관하는 필가(筆架)이다. 고려청자 필가는 많은 예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묵호·연적 등 문방구들과 더불어 고급품이 많다. 장방형의 몸체와 상형(象形)의 용두(龍頭) 장식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상형과 투각(透刻)의 두 가지 기법이 어우러져 밀도 있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푸른빛의 유색이 유달리 뛰어나다.

12~13세기 고려청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물이나 식물, 인물을 표현한 상형청자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상형청자의 모티프는 크게 자연적 소재와 종교적 소재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종교적 소재는 고려시대 국교였던 불교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불상과 보살상, 나한상이 청자로 만들어졌고, 연꽃은 연판(蓮瓣)의 형태로 그릇의 내·외면을 장식했다. 연판은 향로나 향완 뿐 아니라 대접·접시와 같이 윗부분이 벌어지는 일상 용기에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연꽃잎이 활짝 벌어진 것 같은 효과를 냈다. 특히 이 필가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승천(昇天)하는 두 마리의 용의 형상과 만개한 연꽃의 모습을 함께 나타내었다. 품격 있는 연꽃은 고려청자의 발달 배경에서 불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필가 역시 불교의 상징적인 의미를 깊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은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존재로서 왕실의 권위를 드러냈을 것이다.

이 필가는 희소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형과 유색, 투각·음각·양각·철화 등의 다양한 장식기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상급의 청자이다.

□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慶州 佛國寺 三藏菩薩圖)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불국사
○ 수 량: 1폭
○ 규격(cm): 전체 233.8×199.4, 그림 222.7×189.0
○ 재 질: 삼베 바탕에 채색
○ 형 식: 삼장보살도
○ 제작연대: 1739년(영조 4)
○ 제 작 자: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 사 유

이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1739년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등이 경주 거동사(巨洞寺) 오주암(五周庵)에서 제작하여 불영사에 봉안하였다는 분명한 화기를 남기고 있어 18세기 전반기 삼장보살도 도상 및 화풍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천장보살이 범협(梵夾)같은 지물을 들고 있다든가,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의 협시가 좌우 대칭을 이루며 무장형의 인물을 배치하였다든가 하는 점은 이 삼장보살도가 『오종범음집』을 근거로 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팔공산 지역과 구미, 상주 일원의 경북 중북부 지역의 결합된 화풍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삼존을 동일선상에 수평으로 나란히 앉힌 구도는 시각적으로 안정을 구가하며, 인물의 세부 묘사력도 섬세하고 정취하다. 명도는 낮고 채도가 높은 붉은색과 녹색, 황색, 육색 계통을 주조 색으로 사용하여 종교화가 지향하는 숭고함과 장엄함을 잘 표출하였다. 물론 앞선 시기의 담백한 담채풍의 맑고 명랑한 색채감에 비해서는 좀 더 짙고 탁해진 느낌은 있지만, 이는 시대적 미의식과 작가의 취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사된 선묘는 주로 변화가 드문 일정한 선을 사용하였으며, 머뭇거림 없는 붓질도 유려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강조색으로 사용된 백색은 색감이 또렷하게 돌출되어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감을 부여한 점도 기법상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이 삼장보살도는 모든 면에서 18세기 전반기 불화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며, 이 시기 화풍 및 삼장보살도의 도상 등 불화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谷城 道林寺 阿彌陀如來說法圖)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도림사

○ 소 재 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 도림사

○ 수 량: 1폭

○ 규격(cm): 전체크기 287×284

○ 재 질: 삼베바탕에 채색

○ 형 식: 군도형식의 설법도

○ 제작연대: 1730년(영조 6)

○ 제 작 자: 채인(彩仁), 진행(眞行), 즉심(卽心), 각천(覺天), 책활(策活)

○ 사 유

이 작품은 도림사 보광전의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설법도로 1730년 철매(哲梅)의 증명 아래 수화원(首畵員) 채인(彩仁), 진행(眞行), 즉심(卽心), 각천(覺天), 책활(策活) 등이 제작한 것이다. 이 그림을 주도한 채인과 즉심은 1723년 홍국사와 1725년 송광사 불화 제작 때 의겸(義謙)을 수화사로 모시고 함께 작업을 한 대표적인 의겸파 화원이며, 진행과 각천은 1730년 운흥사 괘불 조성 때 의겸을 도왔다. 또한 의겸을 비롯해 채인, 덕민, 지원, 각천, 책활 등은 같은 해(1730년) 공주 갑사의 '석가여래삼세불도'를 함께 제작하였을 만큼 이 들은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의 제작 의도와 달리 단독의 후불벽면에 걸기 위해 조성된 불화로서, 갑사의 그것 보다 좌우 폭이 넓어졌으나, 인물의 표현이나 구성, 묘선, 색채, 문양 등 도상이나 양식의 면에서 대체로 갑사의 화풍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8세기 최고의 화승 의겸의 화풍이 그의 유파 화원들에게 어떻게 스며들고 발전되어 가는지를 가늠케 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특히 적·녹색의 강한 대비와 백색, 황토, 양녹, 갈색 등 부드러운 중간 색조의 부드러운 설채법, 유려한 필선, 중후한 이목구비를 가진 상호 등에서 1724년 송광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1725년 송광사 영산회상도 등 당대의 최고의 화승(畵僧) 의겸(義謙)의 화풍을 잘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이 작품은 아미타여래와 관음·대세지를 비롯한 팔대보살, 그리고 권속들이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며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을 갖추었고, 정취하고 유려한 필선과 중간 톤의 안정된 색감과 문양을 통하여 우수한 화격을 보여주며, 18세기 전반기 화풍과 화사간의 교류를 통한 화맥(畵脈)의 전승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1책(71장)

○ 규격(cm): 반곽 26.1×15.5(26.1×19.5)

○ 재 질: 고정지(藁精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線裝)

○ 제작연대: 1467년(세조 13)

○ 사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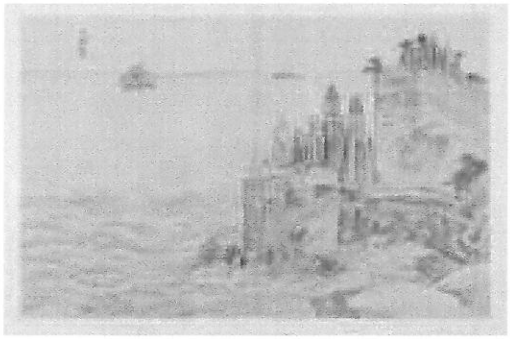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尙法語略錄)》(언해)은 원(元)나라의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 1231~?)의 법어를 약록(略錄)한 것을 조선 초기의 승려인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이 판본은 우리말로 언해한 책이므로 한문본과 구분하여 보통《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라고 부른다.

간경도감에서 세조 13년(1467)에 간행된 이 판본은 초기 한글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하게 평가받아 현재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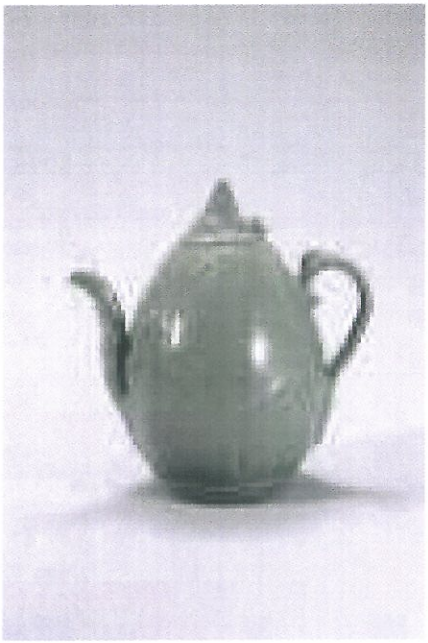
기 지정된 본은 간행당시 인출한 초인본과 5년 뒤인 성종 3년(1472)에 인출한 후인본 등으로 나뉜다. 후인본의 구분은 성종 3년(1472)에 간본인 후인본에는 김수온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다. 기 지정본 중 제767호·제768호·제1172호 등 3종은 세조 13년(1467)년에 인출된 초인본, 김수온의 발문이 있는 제769호·제1012호 등 2종은 성종 3년(1472)년에 인출된 후인본이다. 따라서 발문이 달려있지 않은 조사 대상본은 세조 13년(1467)에 인출된 초인본임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머지않은 시기에 간행된 도서라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와 조선전기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큰 책으로 판단된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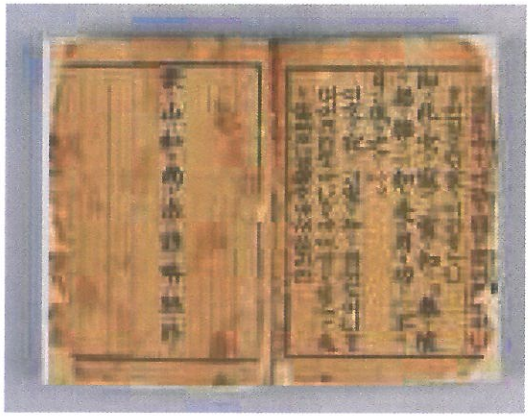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문화재청공고제2016-36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15호「안동 봉정사 극락전」 등 16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경북	국보 국보 보물 보물 보물	15 311 242 448 449	안동 봉정사 극락전 안동 봉정사 대웅전 안동 개목사 원통전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안동 봉정사 고금당
2	경북	국보	201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3	경북	보물	52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4	경북	보물	56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5	경북	보물	60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6	경북	보물	115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7	경북	보물	116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8	경북	보물	119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9	경북	보물	203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10	경북	보물	431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11	경북	보물	581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12	경북	보물	679	김천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13	경북	보물	680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14	경북	보물	988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15	경북	보물	995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16	경북	보물	996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